

2026. 1. 9

해외동향부 (제 7350)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베네수엘라 통제 장기화 계획. 재무장관은 금리인하 촉구

- 미국 3/분기 노동생산성, 2년 만에 최고.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예상치 부합
- UN,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년비 소폭 둔화 예상. '27년에는 반등 기대
- ECB 주요 인사, 현행 금리 수준 적절. 11월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비 보합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증시에서의 기술주 차익 매물, 12월 고용보고서 경제감 등이 영향

주가 강보합[+0.01%],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반도체 관련주 약세 속 순환매 확산 등으로 강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그린란드 논란 등 지정학적 불안정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단기간 내 금리인하 어렵다는 평가 등으로 1개월 만에 최고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전 경제감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5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51.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2.7원, 0.14% 상승). 한국 CDS 하락

		1/8일	1/7일	전일대비			1/8일	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21.5	6,920.9	+0.01%	국채 금리 10y	미국	4.17%	4.15%	+2bp
	유럽	603.83	604.99	-0.19%		독일	2.86%	2.81%	+5bp
	중국	4,083.0	4,085.8	-0.07%		영국	4.40%	4.42%	-1bp
	일본	51,117	51,962	-1.63%	CDS 5y	한국	21bp	22bp	-1bp
	한국	4,552.4	4,551.1	+0.03%		중국	42bp	41bp	+1bp
	달러지수	98.85	98.68	+0.17%	위험 지표	EMBI+	-	267	-
유로화	1.1660	1.1675	-0.13%	VIX		15.45	15.38	+0.46%	
환율	엔화	156.87	156.76	-0.07%		WTI유	57.76	55.99	+3.20%
	위안화	6.9845	6.9916	+0.10%	원자재	구리	579.7	586.1	-1.09%
	원화	1,450.6	1,445.8	-0.33%		금	4,477.7	4,456.5	+0.4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베네수엘라 통제 장기화 계획. 재무장관은 금리인하 촉구

- 트럼프 대통령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확대 및 재건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가를 낮추고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대답
-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중국 주도의 베네수엘라 통제는 용인할 수 없지만, 주요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통상은 가능하다고 언급
-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이 열린 자세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또한 감세정책의 효과가 미국 경제 성장을 강화할 것이며, 대법원이 현행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려도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 연준의 마이런 이사는 금년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150bp 이상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3/4분기 노동생산성, 2년 만에 최고.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예상치 부합

- 작년 3/4분기 노동생산성(전기비연율)은 4.9% 높아져 '23년 3/4분기 이후 최고. 일부에서는 AI 기술 발달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 상승이 일정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소득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도 제기
- 작년 10월 무역수지는 294억달러 적자로 16년 만에 최소 기록.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때문이며, 특히 의약품 100% 관세 부과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 10월 도매재고는 전월비 0.2% 증가했으며, 이는 4/4분기 GDP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
- 1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0만 8천건으로 전주 대비 8천건 늘어 예상치 부합. 이는 노동 수요가 부진하지만,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의미. 고용정보기업 Challenger Grey & Christmas에 따르면, 12월 기업의 해고 계획은 3.5만건으로 7월 이후 최저. 이 또한 대규모 해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 UN,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년비 소폭 둔화 예상. '27년에는 반등 기대

-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금년 추정치(2.8%) 대비 소폭 낮은 수준. 미국은 2.0%를 나타내 전년(1.9%) 대비 높아질 것으로, 중국은 4.6%로 전년(4.9%)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뉴욕 연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Fitch는 금년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

- 뉴욕 연은 조사에 따르면, 1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비 상승(3.2%→3.4%)했고, 실직 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43.1%로 '13년 중반 이후 최저
- 한편, Fitch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1.8%→1.9%)했고,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높여서 제시(2.7%→3.0%). HSBC는 온스당 금 가격이 금년 상반기 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후 조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ECB 주요 인사, 현행 금리 수준 적절. 11월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비 보합

- 권도스 부총재는 현행 금리 수준이 적절하며,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인 페레이라 위원도 금리 변경은 필요 없으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
- ECB의 11월 가계 조사에 따르면, 역대 1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3.1%로 전월과 동일. 1년 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1.1%→-1.3%). 한편 11월 독일 제조업수주는 전월비 5.6% 늘어 예상치(-1.0%) 큰 폭 상회. 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Pantheon Macro Economics)

■ 일본 11월 실질임금, 11개월 연속 전년비 하락. 일본은행은 임금인상 필요 진단

- 11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비 2.8% 줄어 전월(-0.8%)에 비해 감소폭 확대. 명목임금의 경우 0.5% 증가하여 전월(2.5%)에 비해 증가세 둔화. 일부에서는 올해 봄철 임금협상(春闘)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예상되고, 이에 4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편, 1월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에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인상이 필요하여, 이는 금리인상 기초를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9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고용보고서 및 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 중국 12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차기 의장,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 기대 금리인하는 위험 - Financial Times

(The next Fed chair shouldn't party like it's 1999)

- 차기 의장 후보들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금리인하 주장. 파월 의장도 생산성 향상을 인정하여 금년 성장을 전망치를 2.3%로 상향. 그러나 과거와 동일한 잣대로 생산성 향상을 인식하는 것은 위험
- AI의 생산성 효과는 아직 데이터센터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성과가 확인되어야 해당 주장의 설득력이 확보. 거시경제 여건도 90년대와 크게 상이. 탈세계화, 이민 감소, 확장적 재정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 과거의 서사에 의존하는, 무리한 금리인하는 무모한 도박이 될 우려

■ 미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 AI 영향 여부는 불확실. 이에 신중한 평가 요구 - 블룸버그

(The Productivity Boom Has Arrived. AI May Not Be the Reason)

- 미국의 3/4분기 노동 생산성은 4.9% 높아져 '23년 이래 최고. 또한 단위 노동 비용은 2분기 연속 하락. 이에 비용 감소 및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주장이 제기. 일각에서는 AI 확산이 이러한 결과에 일부 기여했다고 평가
- 하지만, 몇몇 산업에서 AI는 숙련된 노동자에게 불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 또한, 당국이 단위 노동 비용 하락에만 집중하면 중립금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금융완화 및 금리인하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요구. 생산성 향상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물가 및 노동시장 관련 추가 데이터 확보 등이 중요

■ 중국 경제, 배경적 이면 존재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가능성 - WSJ

(China Drifts Closer to Its Own Lost De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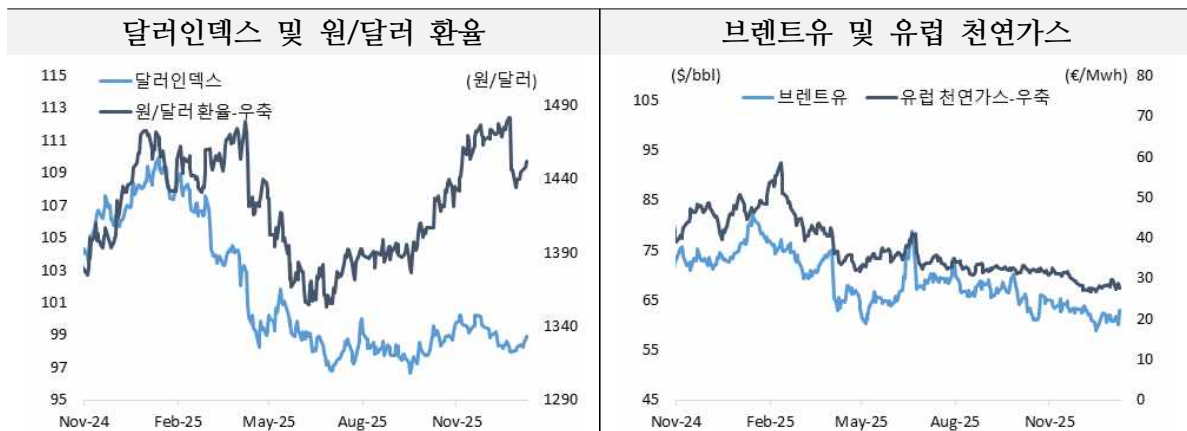
- 1970~80년대 일본과 2000~10년대 중국은 모두 수출 의존적 경제, 신용 팽창에 기반을 둔 급속한 경제 성장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경험. 이에 중국은 '20년 부동산 폭락 여파로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 답습할 우려. 아울러 과잉생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심화도 중국 경제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다만, 중국은 1990년대 초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1인당 소득으로, 역설적 측면에서 성장 여지가 충분하고 일본 선례를 참고 가능하여 경제난 극복에 유리한 입장.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 지속, 고정자산 투자 감소, 불안정한 소비자 신뢰, 좀비기업 증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일본화' 가능성은 높은 편

- **동남아시아 경제, 미국 관세 불구 회복력 입증. 추가 개선 노력도 필요** - Financial Times
(South-east Asia's surprising resilience to the tariff war)
 - 작년 4월 트럼프 관세 부과 결정, 중국産 환적 수출 추가 관세, 저가 중국 상품과의 국내 경쟁 심화 등으로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 하지만, 해당 지역은 총 상품 수출액이 15% 증가(25년 10월, 전년동월비)하는 등 경제는 오히려 호조 양상. 특히, 베트남의 경우 작년 경제 성장률이 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국에서는 올해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
 -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관세 부과 전 선적 물량 확보, 공급망 재편, 수출 경로 다변화, 원가 절감, 對美 관세율 인하, 재정 및 통화정책 지원, 여타 지역 대비 비용 우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에 기인. 하지만, 여전히 높은美中 의존도 극복을 위해 구조 개혁(규제 완화, 기술 인력 양성, 인프라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충, 대외·역내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경제 회복력 강화 대책이 요구
- **미국 기업공개(IPO) 증가, 사모펀드 성과를 평가할 시험대가 될 전망** - 블룸버그
(Return of IPOs could be bad for Private Equity)
- **미국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금지안, 현실화 시 공급 감소로 효과 제한적** - 블룸버그
(This Is Not the Way to Make Housing More Affordable)
- **글로벌 제조업, AI 확산이 제조시설의 분산화·소형화 촉진할 가능성** - The Economist
(The "ChatGPT moment" has arrived for manufacturing)
- **일본의 정부부채 부담, 경제 회복·물가 상승 등으로 상당 수준 축소** - 블룸버그
(Japan's Debt Burden Tumbles to a 16-Year Low on Economic Upswing)
- **중남미 투자 낙관론, 미국 개입에 따른 시장 친화적 변화 기대 등을 반영** - Reuters
(Investors bullish on Latin America after US move on Venezuela's Maduro)
- **베네수엘라 국채, 마두로 축출에도 국가부채 고려 시 수익 기대는 제한적 예상** - 블룸버그
(Playing Venezuela's Bond Game Takes Nerves of St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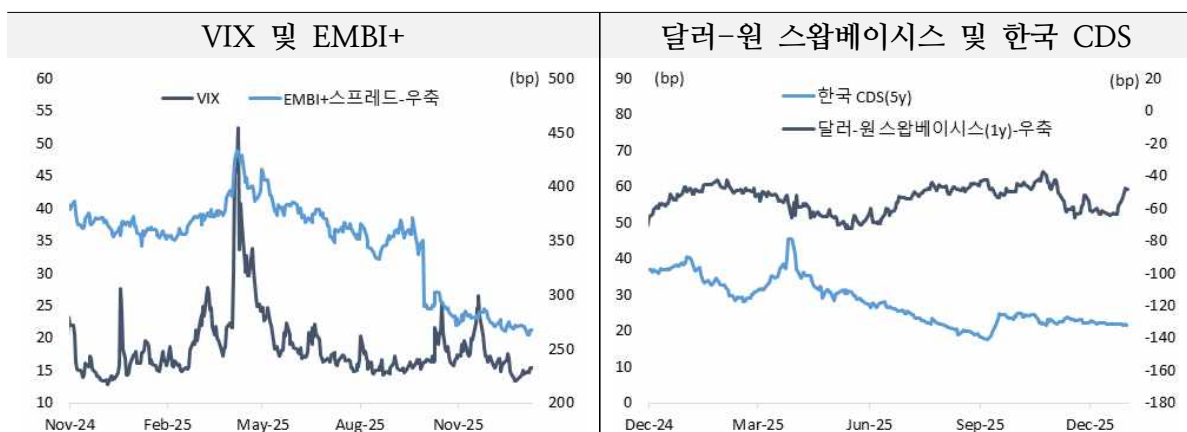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